1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와 동구,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냉방기를 켠 상태에서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문열고 냉방' 과태료 부과…광주 합동단속 첫날

"벌금폭탄 맞으면 큰일나죠" 업주들 대부분 규정 준수

700곳 조사 9건 적발

"오늘은 경고장이지만, 다음에 적발되면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입니다."

광주시와 각 구청 공무원 등 합동단속반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개문냉방) 영업을 하거나 실내냉방온도 26도 준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1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광주시·동구청·한전·에너지관리공단 소속 공무원들이 개문냉방 단속에 나서면서 의류매장·휴대전화 매장·음식점 등이 밀집돼 있는 충장로 상가에 한때 비상이 걸렸다.

합동단속팀은 충장로 1가 A휴대전화 매장 입구를 확인한 뒤 경고장을 발부했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을 한 탓이다. 다만, 첫 단속이었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한번 경고장을 받은 매장이 또다시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는 50만원(1회), 100만 원(2회), 200만 원(3회), 최대 300만 원(4회)까지 부과된다고 고지했다.

북구 합동단속반도 같은 날 오후 3시께 북구 신안동 광주역 인근 9층 빌딩을 찾아 온도계를 들이밀었다.

합동단속반은 빌딩 3·5·9층을 돌며 벽·창·중앙의 온도를 쟀고 평균 온도가 27도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른 건물로 옮겼다.

이날 각 구청 합동단속반은 충장로(동구)·상무지구(서구)·남구(봉선동)·북구(용봉지구, 전대후문)·광산구(수완지구)에서 음식점·휴대전화 매장·빌딩 등 700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9건을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경고장만 발부했다. 각 구별로는 ▲동구 1건 ▲서구 1건 ▲남구 3건 ▲북구 4건 등이다.

에어컨을 틀면서 입구를 비닐로 된 천을 막아놓고 영업을 하는 매장도 적지 않았다. 동구 충장로 한 의류매장은 에어컨을 켜놓고 입구에 비닐로 된 천을 막아놨다. 합동단속반은 "다음부턴 비닐 천보다 철저히 절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권고했다.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한 음식점은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도 켠 채 영업을 했지만 온도를 잰 결과, 28도였다. 에어컨을 켜면서 송풍기능만 사용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단속반 설명이다.

합동단속반은 다음달 말까지 개문냉방과 실내냉방온도 26도 준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지난달 한 차례 이상 지도·단속을 한 탓인지 업주 대다수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운전중 꽁초 투기 어떻게 잡지?

광주 서구청 단속 방침 불구 실효성 의문

'달리는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운전자를 단속하라'

광주시 서구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구는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를 교통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꼴불견이자 사고 유발은 물론 도로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구는 1일 상무지구, 광천터미널, 운천저수지 일대에서 3개월 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더불어 도로변 쓰레기 투기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서구는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20명을 투입해 매주 화·목요일 오후 5~6시까지 대로변이나 정류장 등에 머무르며, 교차로와 상습정체구간 등에서 차창 밖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청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가 투기 행위자를 적발한 뒤 이동하는 차량을 무전기로 연락, 멈춰 세우고 단속하기가 용이치 않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사진 촬영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차창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린 투기자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증거가 부족해 과태료를 매긴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올해 제보된 13건 중 3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했다" 면서 "불법 투기가 환경 훼손 및 사고 유발 행위임을 인식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 해결

'이웃사이센터' 전국 확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개설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5대 광역시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콜센터(☎1661-2642)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1대 1 민원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광주가정법원 서구 시청로에 '둥지'

5층 규모 신청사 마련 업무시작

광주가정법원(법원장 강신중)이 1일 광주시 서구 시청로 신청사〈사진〉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신청사에는 1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가사와 소년전문 법원으로서 필요한 각종 시설이 설치됐다. 심리 과정에서 개인 정보 누출을 막고 심층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정과 조사실, 상담실도 기존보다 늘려 대기시간을 줄였으며, 협의이혼 교육실, 면접교섭실, 보호소년 대기실, 증인 증언실 등도 갖췄다.

황진희 광주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별도의 개청 행사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며 "새 청사에서 내실있는 운영으로 한 차원 높고 다양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1947년 동구 동명동에 처음 문을 연 뒤, 1973년부터 동구 지산동에서 광주법원과 종합청사를 함께 이용해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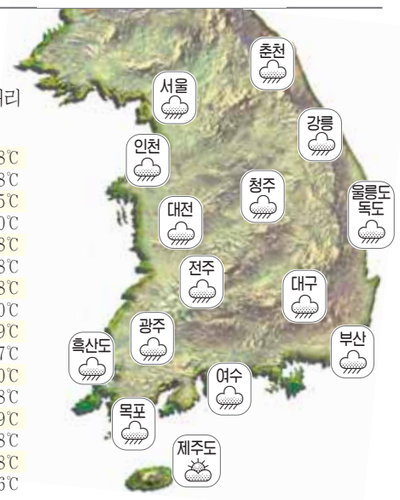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2분 해짐 19시 51분 | 달뜸 00시 57분 달짐 14시 36분

본격적인 장마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곳 있겠다.

광 주	비	23/28℃
목 포	비	23/28℃
여 수	비	23/25℃
나 주	비	23/30℃
완 도	흐림	23/28℃
구 례	비	23/28℃
강 진	흐림	23/28℃
해 남	흐림	23/30℃
장 흥	흐림	23/29℃
순 천	비	22/27℃
영 광	비	23/30℃
진 도	흐림	23/28℃
전 주	비	23/29℃
군 산	비	23/28℃
남 원	비	21/28℃
흑산도	비	22/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0~1.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위험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5~3.0m
먼바다	남~남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1.5~2.5m

	밀물	썰물
목포	09:02 22:01	02:06 14:41
여수	04:00 7:11	10:27 23: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날 씨						
최저/최고	23/27	23/27	23/27	23/27	23/28	23/27

"현장 교육 활성화 위해 교장·교육장 권한 확대"

취임 3년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1일 "현장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교장과 교육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장과 교육장에게 학교 운영과 예산을 맡겨야 특색있고 맞춤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장과 교육장의 권한을 축소·규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며 "광역 교육감은 중앙정부와 학교교육 현장의 연결고리에 불과해 지역별 특색있는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직선제로 뽑는 것이 현장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부 교육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추가 설립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여수·보성·신안·장성 등 4곳의 기숙형 중학교는 이미 기본·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여서 중도 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기숙형 중학교는 작은학교 살리기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과 별개로, 2년전 거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원해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신림점(신림역 2번 출구):02)86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필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광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